

## 회화의 예술(The Art of Painting)

### 1. 전시개요

제 목 : 회화의 예술 (The Art of Painting)  
일 시 : 2012. 11. 21 (수) - 2012. 12. 30 (일) (40일간)  
장 소 : 학고재 갤러리 전관  
작 가 : 남경민, 서상익, 이동기, 정수진, 홍경택  
기 획 : 이진숙 (<러시아 미술사>, <미술의 빅뱅> 저자)  
출품작 : 회화 50여 점

### 2. 전시내용

학고재 갤러리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목 받는 회화작가 5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회화의 예술>을 개최한다. 전시의 제목 <회화의 예술>은 베르메르의 작품에서 제목을 빌어 왔다. 베르메르의 <회화의 예술>은 영광스러운 회화의 세기인 17세기를 마무리하는 작품이다. 20세기 이후 회화의 종언은 여러 번 선언되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최고의 과학과 늘 함께 해온 예술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해왔다. 그런데 왜 회화는 계속되고 있는가? <러시아 미술사>, <미술의 빅뱅> 저자인 이진숙 기획자가 기획한 본 전시에는 남경민, 서상익, 이동기, 정수진, 홍경택이 참여하여 5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작가' 그리고 '회화'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것이다. 21세기에도 호모 픽토르 (Homo Pictor), 그림을 그리는 인류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생생한 육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이다. 유행하는 담론의 틀에 맞춘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서상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년대 후반생의 대부분 비슷한 연배의 작가들로 데뷔한지 길면 20여 년 짧으면 10년간 작업을 해온 중견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 출품작들은 그들의 작업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동기는 새로운 추상작업을, 정수진은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시각이론'과 함께 그것을 설명하는 작품들을, 홍경택은 그의 손맛이 느껴

지는 다양한 구상작업을 보여준다. 잘 알려진 작가들의 변화와 혁신의 순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3. 기획의 글

#### 회화의 예술 -21세기의 HOMO PICTOR를 위하여

이진숙 (<러시아 미술사>, <미술의 빅뱅> 저자)

#### 21세기 회화는 존립할 수 있을까?

전시의 제목 <회화의 예술(The Art of painting)>은 베르메르의 작품에서 제목을 빌어왔다. 베르메르의 <회화의 예술>은 영광스러운 회화의 세기인 17세기를 마무리하는 작품이다. 17세기에는 평범한 재능을 가진 작가들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세계관과 자극이 모두를 생산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회화는 당대의 상식과 일반적인 세계관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진실에 도달했다고 츠베탕 토도로프는 자신의 책 <일상예찬>에서 지적한다. 17세기야 말로 어떤 영역에서보다 회화가 시대정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빠르게 도달해서 꽃을 피웠다는 말이다. 베르메르의 그림에서처럼 회화가 승리를 구가할 만한 세기였다.

매개론의 주창자 레지스 드브레도 <이미지의 삶과 죽음> 에서 이와 비슷하게 회화를 포함한 이미지들에는 동시대의 철학이나 사회과학보다 앞선 현실 인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방식, 과학적 패러다임,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는 징후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보다 차라리 현대미술관으로 가라”고 말한다. (중략) 이때 레지스 드브레가 말하는 이미지는 회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진, 비디오 아트, 영화, 광고, 만화 등 다양하다. 심지어는 회화 역사의 종결이 이미지 역사의 종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우리 모두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미지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미지는 차고 넘쳐서 범람하여 무의미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을 사랑한다. 궁금하다. 즉, 호모 픽토르(Homo Pictor), 그림을 그리는 인류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왜 회화는 계속되고 있는가?

회화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전시에서는 재현이론, 반재현이론, 재현에 대한 재현 이론, 평면성 이론 등 회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온 논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진부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달리 회화에 대한 유일한 이론이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회화가 벌여온 엔드 게임의 다양한 형태일 뿐이다. 20세기 이후 회화의 종언은 여러 번 선언되었지만, 회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경영학의 교과서 문구를 실현하듯이 매 위기의 순간, 회화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내었다. 종언을 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관행으로는 존립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새로운 방식을 찾는 '생명연장책'이다. (중략) 21세기가 된 상황에서 20세기 후반기를 지배했던 이론(특히 형식주의 이론)은 그 시효를 다한 듯이 보인다. 그리고 2012년 지금은 모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어쩌면 새로운 엔드 게임을 벌이기 위한 숨고르기 일지도 모른다.

##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이번 전시에는 꾸준히 그림을 그려온 화가들 남경민, 서상익, 이동기, 정수진, 홍경택이 전시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제 그 신념, 혹은 무관심으로까지 보이는 그 독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왜 그림을 그리는가?”이다. 큰 문제이다. 한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실천하며 대답해야 할 큰 문제이다. 그러나 던진다. 이 질문에 작가들은 우선 작품으로 답을 하기로 한다. 작품과 함께 도록에 실린 긴 대담을 실어서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해본다. 기획자의 장황한 설명으로 관람객과 작가 자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작가들의 육성에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시는 진행된다. **화가 홍경택의 말대로 19세기적인 것, 20세기적인 것, 21세기적인 것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다양성의 시대의 회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이 전시의 목적이다.**

이들의 말은 유행 담론의 틀에 맞춘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서상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년대 후반생의 대부분 비슷한 연배의 작가들로 데뷔한지 길면 20여 년 짧으면 10년간 작업을 해온 중견 작가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서 작업의 뒤편에서 그들이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것, 방향 제시가 아니라 중간 점검이 전시의 목적이다. 이번 전시 출품작들은 그들의 작업이 더욱 심화되고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진 작가들의 변화와 혁신의 순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사각의 평면이라는 회화의 공간은 그들에게 지옥일까? 천국일까? 새로움이 미덕이 아닌 이곳, 구상화에서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역사가 축적되어 있는 이곳, 회화의 공간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남경민은 기존의 <화가의 아틀리에>시리즈를 더욱 숙성시켜서 발표한다. “캐주얼한 분위기의 회화적 식탁”을 마련하고 치유와 소통이라는 예술의 몫을 차분하게 수행한다. 서상익은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와 미술관을 둘러싼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화에 관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간다. 거장들에 대한 오마주로 그들의 작업 방식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그는 회화에 대해서 더 많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동기는 팝아티스트라는 규정을 넘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메타 미디어적인 작품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추상작업과 또 대중매체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의 상투성을 담아내는 새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정수진은 그 동안 오랫동안 공약해왔던 새로운 시각 이론을 발표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홍경택은 지금까지의 평면적인 작업과는 달리 회화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세속적인 가운데서 성스러운 땅이나 초월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그는 “선과 악”이라는 오래된 인간의 문제 또한 꼬집어낸다. 이런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한 탐구는 예술이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 공통의 결론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아주 큰 현재적 진단을 의미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회화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이론이나 내용 중심의 이해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논의였다는 데 모두 공감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한 시기가 끝나면 **종합의 의지**가 강해진다. 결국 그것들을 모두 끌어안으면서도 새로운 지점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추상화와 구상화에 대해 여러 작가들과 나눈 결론은 그 양자가 **초기의 추상화 주창자들이 주장했던 것만큼 커다란 차이를 가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가능한 것은 회화의 역사가 그만큼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회화들이 차용, 패러디, 오마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적된 회화의 역사를 이용하면서 메타 페인팅(meta painting)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미 회화의 영역에서는 다

양한 실험이 행해졌다. 여기서 늘 새로울 것을 강요받는 예술창작의 본성상 그만큼 **회화의 여지는 좁아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좁아진 영역에서의 새로움을 일구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자부심은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화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회화의 존립 가능성은 바로 '인간' 자체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손으로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회화라는 것이다.**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인 한, 인간이 살아있는 한, 평면에 어떤 이미지를 그리려는 욕구는 본능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혁명으로 소통의 간접성이 증대되고 모든 것이 정보로 환원되는 비물질화, 추상화 과정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리라는 예측 속에 굳건히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회화는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회화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는 길의 끝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술가들이다. 어쩌면 "미술(Art)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곰브리치의 유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각의 평면은 그들에게 천국일까, 지옥일까?라는 소박한 질문에 어느 정도 답도 얻은 것 같다. 그것은 행복한 지옥이자, 불행한 천국이었다. 남경민의 표현대로 "회화와 (그들의) 관계는 팔과 다리와의 관계, 마음과 육체와의 관계라 할 만큼 밀접하고도 가까운" 관계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남경민, 서상익, 이동기, 정수진, 홍경택 이 5명의 작가가 한국 회화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 한국 회화의 매우 중요한 일부이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생생한 육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 4. 작가 소개

남경민 Kyungmin Nam



남경민

클림트

2012

Oil on linen, 145.5x224cm

## 남경민 : 캐주얼한 느낌의 회화적 식탁

<화가의 아틀리에> 시리즈를 출품한 남경민은 고전 대가들에 바치는 오마주, 작가 자신의 내면풍경을 그려왔다. 남경민에게 회화는 "사유의 수단이고 내면의 성찰 과정"이다. 회화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주장하는 그녀는 "그림 자체의 순수성"과 자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일치시킨다. 작품과 작가의 삶을 일치시키려는 도덕적인 노력이다. 그녀가 바라보는 회화의 주요한 기능은 바로 기계 문명에서 비롯된 상처의 치유이다. 그녀는 "캐주얼한 느낌의 회화적 식탁"을 우리에게 제안한다. 그녀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식탁은 따뜻한 소통과 휴식을 위한 자리이다. "여전히 유럽의 대가들이 그린 그런 작업을 보면 가슴이 뻐다"는 그녀는 이런 치유의 기능이 회화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근거가 된다고 말한다. 그녀의 예측으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미디어 아트가 앞으로 더 무성해져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의 모든 게 미디어아트가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 한다. 그때가 되면 "거꾸로 손으로 하는 그림,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더 존중을 받고 압도적으로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진단이다. 현대문명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감성을 살리는 손의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은 제겐 사유의 수단이고 내면의 성찰 과정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그 그려진 그림을 바라보며 제 안의 깊숙한 어떤 것과 조우하는 과정이죠. 그것들은 때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제가 그린 그림은 거울처럼 저 자신을 비춰줘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또 어루만져지고 치유 받는 과정이죠."*

*"소통의 수단은 발전했는데, 소통은 부재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즐길 수 있어야겠죠. 그런 캐주얼한 느낌의 회화적인 식탁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마치 그림 속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들이 방안에 들어오면 뭔가 인생과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2012.11.15

보도자료

**남경민**

1969 서울 출생  
1997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99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과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0 풍경을 거닐다, 갤러리 현대 강남, 서울  
2006 남경민전, 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두 개의 풍경, 이화익갤러리, 서울  
2005 갤러리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화가의 작업실, 브레인팩토리, 서울  
나비공간채집, 스톤앤워터, 안양  
2000 창, 빛 그리고 기억의 편린들, 조흥갤러리, 서울  
1999 창 - 드러남, 드러나지 않음, 갤러리담, 서울

**그룹전**

2012 아시아안 아트 비엔날레 방글라데시 2012, 실파카라 아카데미, 방글라데시  
토포스 - 은유의 장소, 모란미술관, 남양주  
맥락의 재조명, 아트 인 엠버시 프로그램, 미국 대사관저 하 비브 하우스, 서울  
브레인 - 뇌안의 나, 사비나미술관, 서울  
미술관 나들이 - 현대미술 속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예술공원 내 알바로시자홀, 안양  
2011 뫼비우스의 띠 - 신화적 사유를 삼키다, 인터알리아, 서울  
고양이 봄을 그리는 소년 - 이원수, 윤석중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 그림전, 국립어린  
이청소년 도서관, 서울  
기억의 미래를 좇는 사람들, 가나아트센터, 서울  
나비의 꿈,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시화일률, 가나아트센터, 서울  
2010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리마인드 - 그 곳을 기억하다, 영은 미술관, 광주, 경기도  
수상한 집으로의 초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2010 파이낸셜뉴스 미술제 - 대표작가 110인 초대전, 세종문화회관, 서울  
꿈을 바라보며 그리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  
2009 원더풀 픽처스, 일민 미술관, 서울  
앤티포디스, 이영미술관, 용인  
2008 갤러리 175 외전 - Director's Cut,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영은 2008 레지던시 - 이행의 시간, 영은 미술관, 광주, 경기도  
풍경과 상상전, 아람누리미술관, 고양  
업-앤-커머스 신진기예, 토탈미술관, 서울  
베네프, 브레인팩토리 5주년 기념행사, 브레인팩토리, 서울  
반전 Part 2, 갤러리 인, 서울  
2007 그림 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상상충전, 경기도미술관, 안산  
명화의 재구성, 사비나미술관, 서울

컴플렉스, 성곡미술관, 서울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화익갤러리, 서울  
꿈 속을 걷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스틸라이프 & 플라워, 갤러리 H, 서울  
2006 소프트 랜딩, 카이스 갤러리, 서울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트렌드-스포팅 2006, 갤러리 현대, 서울  
오픈 스튜디오 - SUB,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기억의 방,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포사이트, 오프라갤러리, 서울  
2005 겨울나비, 씽크씽크 미술관, 서울  
다르게 보기 - 곤충도감 2, 홈플러스갤러리, 서울  
다르게 보기 - 곤충도감 1, 홈플러스갤러리, 광양  
가자 베니스 비엔날레, 갤러리 175, 서울  
2004 2004 새로운 시각전 - 일탈, 대안공간 풀, 서울  
사랑, 그 힘, 키미아트, 서울  
2003 작은판화와 장서표전, 정글북아트 갤러리, 일산  
2002 동서양의 만남전, 예가족 갤러리, 서울  
2001 송은미술대상전,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2000 4.19 스페이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1998 움직이는 소리, 삼정아트스페이스, 서울  
1997 움직이는 소리, 관훈미술관, 서울  
1996 전국대학미술전, 한남대학교, 대전

**수상**

2006 제 6회 송은미술대상전, 우수상  
1996 전국대학미술전,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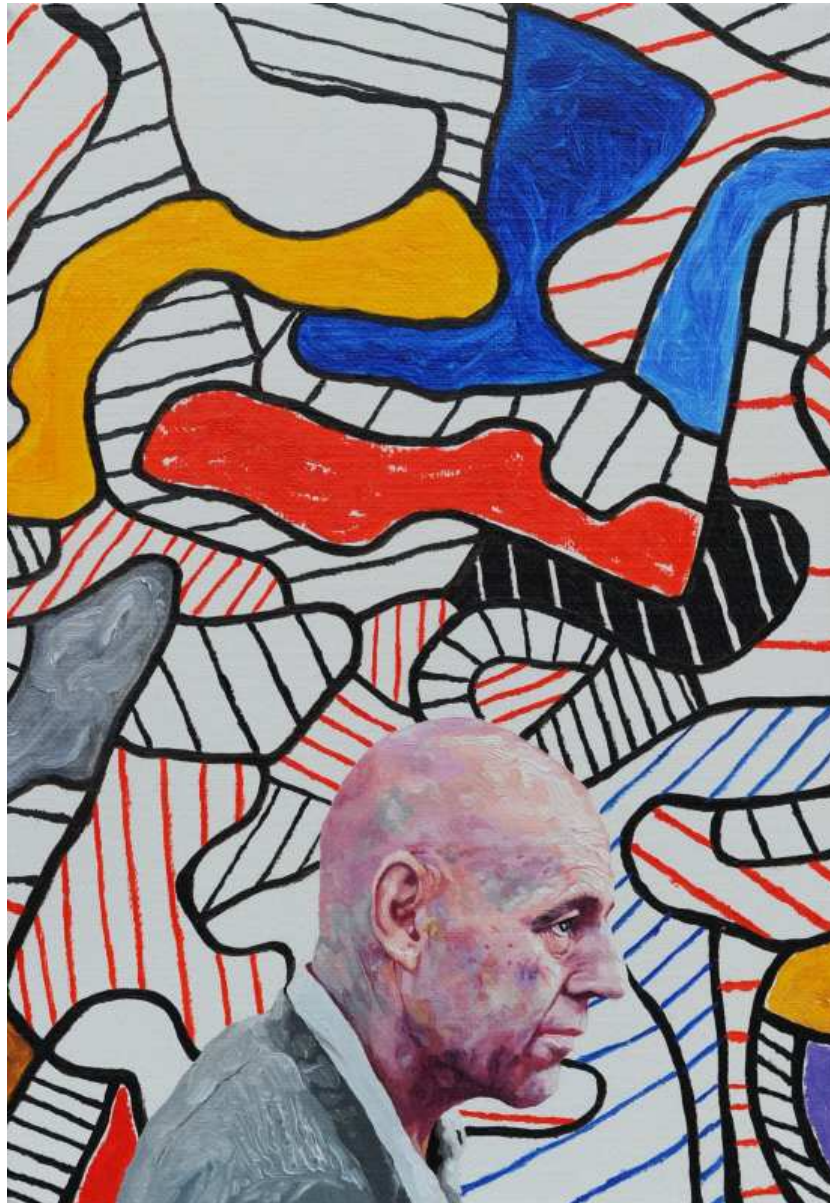
**레지던시**

2010 이충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 2기 단기입주작가, 서귀포  
2006 영은미술 창작스튜디오 제 6기 장기입주작가, 광주, 경기도  
2005 국립 고양창작스튜디오 제 2기 장기입주작가, 고양

**소장**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용인  
사비나미술관, 서울  
BMW 그룹, 서울  
로얄&컴퍼니(주), 서울  
갤러리 터치아트, 파주  
송은문화재단, 서울  
리안갤러리, 대구  
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이화익갤러리, 서울  
하나은행,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순천제일대학교, 순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서울  
삼화여행사, 서울

**서상익** Sangik Seo



*서상익*

**Temple of the Artist - J. Debuffet**

2012

Oil on canvas, 27.3x19cm



## 서상익 : 회화, 몸의 감각을 기억하는 예술

서상익은 이번 전시의 가장 젊은 작가이다. 그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은 동료들이 미디어 아트를 선택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회화를 고집하며 그려온 그는 이제 좀 더 회화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들 중에는 그가 오마주를 바치는 작가들의 초상화들이 있다. 각 작가들의 모습을 작품들과 함께 병치하는 그림을 하면서 그는 다양한 형식실험을 해나갔다. 여러 작품을 실험적으로 그리면서 서상익은 “추상을 하든 구상을 하든 얼마나 자기만의 감각과 생각으로 표현을 해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감각에 대한 지적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21세기 회화의 존립 가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답도 그는 이 감각에 대한 지적과 관련시킨다. 그의 대답은 투박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렸다. 나는 감히 그를 실업자로 만들 질문을 던졌다. “회화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우문에 그는 현답을 말했다. 디지털 이미지에 친숙해지겠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인 한, 육체에 기억된 감각을 표현하는데 회화만한 장르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페인팅이 어떻게 이 감각을 논리화 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진” 시대라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음, 딱 떨어지지 않음, 균열, 불균형” 같은 회화가 가진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디지털 시대의 생존비법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저는 회화가 디지털 작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정확하지 않음, 딱 떨어지지 않음, 균열, 불균형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편이죠.”*

*“한 아동심리학 전문가가 말씀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가상으로 그렸을 때는 감각이라는 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앉아서 난장을 피고 손끝으로 직접 느꼈을 때 뇌를 자극하지, 가상으로 뇌가 반응하지 않는대요. 아이들이 물론 디지털에 친숙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을 잊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라가면서 분명히 그 균열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2012.11.15

보도자료

**서상익**

1977 대구 출생  
200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수료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2005 제 3회 우수청년작가 기획전 - 존재와 표상, 갤러리 가이아, 서울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인터알리아, 서울  
갤러리 잔다리, 서울  
류 갤러리, 서울  
하나 대투증권, 서울  
스타벅스 코리아, 서울  
국순당, 서울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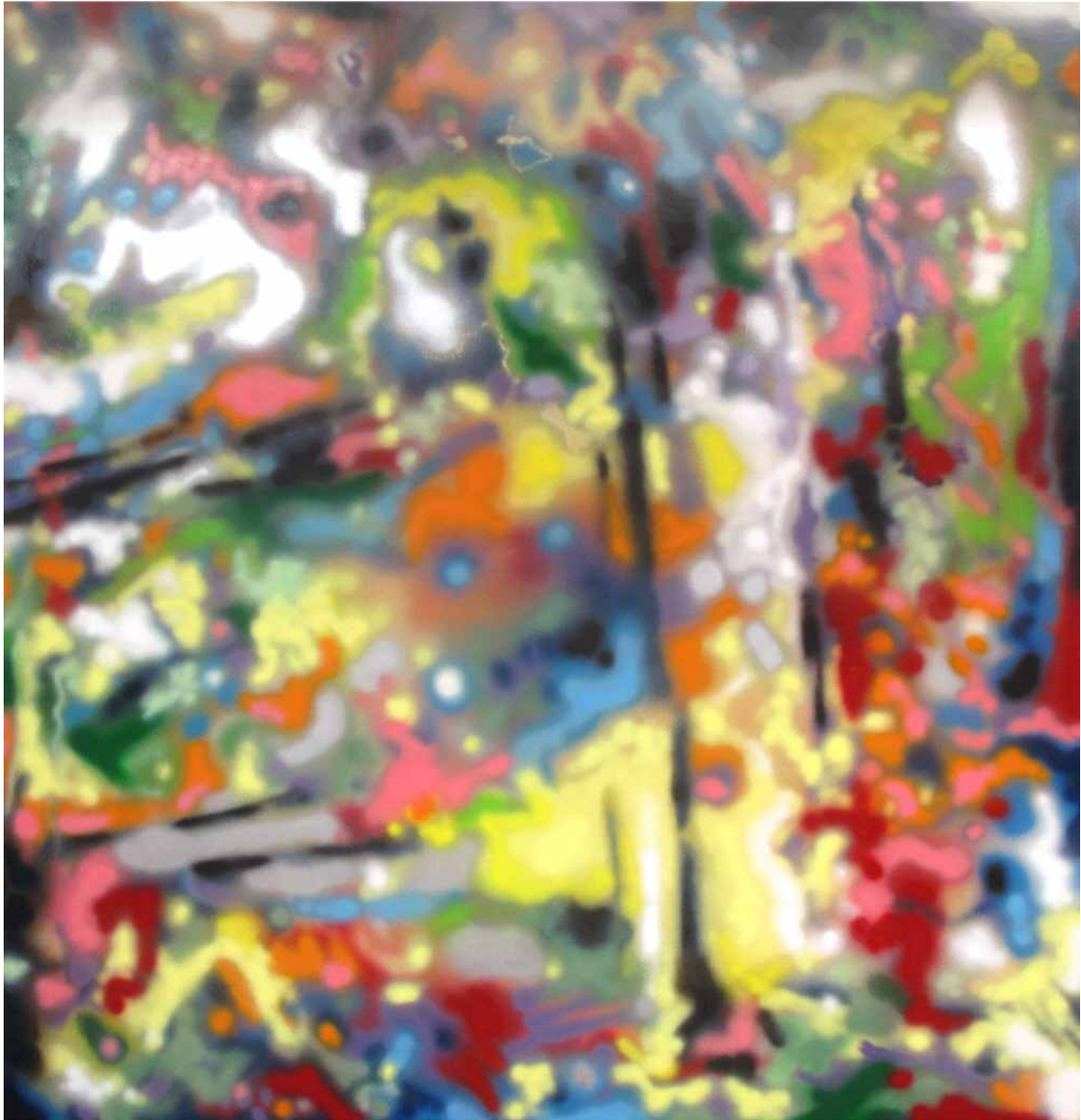
2010 써커스, 인터알리아, 서울  
2008 녹아 내리는 오후, 리나 갤러리, 서울

**그룹전**

2012 극적 시퀀스, 인터알리아, 서울  
작은 그림, 서울옥션 강남점, 서울; 장흥아트파크, 양주  
2011 서포트, 토탈미술관, 서울  
인터알리아 2008-2011, 인터알리아, 서울  
2011 다색다감: 설중지몽, 갤러리 잔다리, 서울  
어떤 연극 2, 아트팩토리, 파주  
차용의 전략 - 그림 속 그림, 롯데갤러리 안양점, 안양  
흠런-희망을 쫓아라, 프로야구 30주년 기념전, 롯데갤러리 영등포점, 서울  
흠런-희망을 쫓아라, 프로야구 30주년 기념전, 롯데갤러리 광복점, 부산  
작은 그림, 서울옥션 강남, 서울  
조우하는 드로잉,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0 두 윈도우 볼륨 2, 갤러리현대 강남, 서울  
거꾸로 달리는 시계, 이천 시립 월전미술관, 이천  
직관, 학교재갤러리, 서울  
알레고리아, 갤러리 밥, 서울  
I M ART & Artist III, 아이엠아트 갤러리, 서울  
ZERO IN, 살롱 드 에이치, 서울  
선화랑 개관 33주년전, 선 화랑, 서울  
2009 스펙터클과 현대미술, 텔레비전 12, 서울  
갤러리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회화에 묻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비온드 리얼리즘, 봉아트 갤러리, 서울  
어떤 장소, 갤러리 인, 서울  
스코프 뉴욕, 링컨센터, 뉴욕  
현대미술의 풍경: 마음의 표정, 롯데아트갤러리, 서울  
2008 IYAP 2008: 매핑 더 퓨처 오브 아트, 인터알리아, 서울  
소소한 그러나...소중한, 미공간 봄, 춘천  
다이얼로그 인 비트윈, 서울대학교, 서울  
꿈꿀 권리, 아트팩토리, 파주  
현상과 환상, AKA갤러리, 서울  
상상, 스페이스 라이슬라, 서울  
2007 2007 우수청년작가전, 갤러리 가이아, 서울  
13회 미술세계 선정 젊은 작가 발언전, 갤러리 라메르, 서울  
2006 어떤 연극, 갤러리 NV, 서울

2012.11.15  
보도자료

**이동기** Dongi Lee



*이동기*

**코카인**

2012

Acrylic and spray paint on canvas, 210x200cm

## 이동기 : 동시대 그리고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작업

이동기와의 대화도 흥미로웠다. 팝아트의 대부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어떤 규정에 안주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유동하고 확장되는 세계 인식과 더불어 그의 작품 세계는 확장되어왔다. 팝아트적 요소와 추상화 등 가장 대조적인 회화적 이미지 전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이 그의 작품 속에 들어있다. 대담 중에 이동기 자신은 "어떤 회화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당당한 선언은 전시의 개념을 무화시키는 말이 아니라 전시의 개념을 확장하는 말이어서 환영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동시대 그리고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정지된 이미지"인 회화인데, 이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작품들, 개념 미술이나 미디어 아트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데뷔 초기부터 TV, 광고, 만화 등에 대한 다양한 메타 미디어적인 작업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대중매체에서 반복되는 상투성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TV가 현실을 모방했지만, 현실이 TV를 모방하는 현실에서 미디어가 종교의 대체물이 되어 맹신을 유발하는 상황을 그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회화적인 테마로 잡고 있다. 그와의 대화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추상화에 대한 견해였다. 어쩌면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추상화와 팝아트의 병치하는 작업 이후 이번 전시에서는 본격적인 추상화를 발표한다.

*"제 작품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작품들, 예컨대 개념 미술이나 비디오 아트 같은 것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화가) 낡은 매체라는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대 그리고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뭔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출품작 <문을 여는 여자 (Woman Opening Door)>는 한국드라마와 만화가 결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반복되는 상투적인 느낌, 미디어적인 관행들이 데자뷰로 떠오르는 것을 포착하고 싶어요."*

*"2002년 모마에서 리히터 회고전을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제게도 오래 전부터 추상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당시 스승님들은 대부분 추상작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거의 유일하게 추상미술이 메인스트림을 형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건 한국의 문화 속에 단지 현실에 대한 고민이 아닌,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사고를 하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저에게도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평면에 그려진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속의 빠르게 흘러가는 장면들 중 어느 장면을 정지시키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음악, 문학, 영화 등 대부분의 장르가 그 형태에 있어서 음원, 전자 책, 디지털 영화처럼 데이터의 상태로 비물질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미술, 특히 회화나 조각 등은 물질적인 조건을 유지하고 있죠.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비물질화되어 가고 데이터화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충, 보완하고 싶어하게 될 것입니다."*

2012.11.15

보도자료

**이동기**

1967 서울 출생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석사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불확실성의 정원, 갤러리2, 서울  
2011 롤 플레잉 게임, 롯데 갤러리, 서울  
2010 달콤쌉싸름, 갤러리2, 서울  
롤 플레잉 게임, 구지갤러리, 대구  
2009 더블 비전, 마이클 슐츠 갤러리, 베를린  
2008 버블, 윌렘 커스봄 갤러리, 암스테르담  
금산갤러리, 도쿄  
버블, 갤러리2, 서울  
더블 비전, 갤러리2, 서울  
2007 아토마우스, 갤러리 목, 베이징  
2006 스모킹, 원 앤 제이 갤러리, 서울  
2005 김재선 갤러리, 부산  
2003 크래쉬, 일민미술관, 서울  
2002 고바야시 갤러리, 도쿄  
2001 아토마우스의 모험, 갤러리 동동, 서울  
1999 머니 허니, 서남미술전시관, 서울  
머니 허니, 그림시 갤러리, 수원  
머니 허니, 신세계 갤러리, 인천  
1998 언더월드,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실, 의왕  
1995 프로그램, 홍익대학교 전시실, 서울  
1995 맨 & 우먼 1988-1995, 갤러리 드 서울, 서울  
1993 갤러리 온, 서울

**그룹전**

2012 퓨처 패스, 타이완국립미술관, 타이중, 대만  
견인지애, 아트사이드갤러리, 서울  
교과서 속 우리 미술,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객관화하기, 인터알리아, 서울  
2011 퓨처 패스, 네일드뮤지엄, 로테르담, 네덜란드  
코리안 랩소디,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뉴 아티스트, 갤러리 쇼 컨템퍼러리 아트, 도쿄  
퓨처 패스: 아시아에서 세계로 - 제 54회 베니스비엔날레 부대  
전, 아바찌아 디 산 그레고리오, 베니스  
기억의 미래를 좇는 사람들, 가나아트센터, 서울  
헨켈 이노아트 프로젝트, 대안공간 루프, 서울  
이동기와 쟌센 라피사르다: 스트리트 어택, 플래툰 쿤스트할레,  
서울  
2010 메이드 인 팝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인천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모바일 비전: 무한미학, 투  
모로우시티, 인천  
만평, 홀스톤갤러리, 대전  
한국현대미술의 흐름Ⅲ - POP ART, 김해문화의전당, 김해  
예술가 프로덕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9 내 퍼즐의 조각들, 로스토크 쿤스트할레, 로스토크, 독일  
세상, 만화, 윌렘 커스봄 모던 & 컨템퍼러리 아트, 암스테르담  
인라이븐 - 실재와 가상 사이: ANIMAMIX 비엔날레 2009-2010,

금일미술관, 베이징  
Un/Real의 은유-ANIMAMIX 비엔날레 2009-2010, 상하이 현대  
미술관, 상하이  
감성론, 인터알리아, 서울  
뮤지엄2, 코리아 아트 갤러리, 부산  
시간의 기념비, 마이클스쿨츠갤러리, 베이징  
리드 인 코리아II, 위드 스페이스 갤러리, 베이징  
2008 B-Side, 두아트서울, 서울  
오늘의 한국미술: 미술의 표정,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  
울  
만화를 넘어: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전, 비온드아트스페이스, 베  
이징  
예술과 자본, 대안공간 루프, 서울  
아트 옛 홈\_원더플라이프, 두산갤러리 서울, 서울  
러브 러브, 갤러리 쌈지, 서울  
2007 "3L4D" 애니매믹스의 새로운 세기, 형이상 갤러리, 타이페이  
한국현대미술: 원더랜드, 중국미술관, 베이징  
애니망가, 메종데자르크레테이, 크레테이, 프랑스  
2006 상:상(想像)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제 2회 중국 국제 카툰 &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항저우, 중국  
픽션@러브, 상하이 현대미술관, 상하이, 중국  
2005 20세기로의 여행: 피카소에서 백남준으로, 덕수궁 미술관, 서울  
팝 팝 팝, 가나아트센터, 서울  
남·북의 현대미술, 갤러리 캔버스 인터내셔널 아트, 암스테르담  
Packed/Unpacked II: 내 마음 속의 앨리스, 쌈지미술창고, 파주  
애들레이드 필름 페스티벌, 애들레이드, 호주  
애니메이트, 성곡미술관, 서울  
상상유희, 백해영갤러리, 서울  
2004 미술작품과 떠나는 시간여행,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픽션@러브: 현대미술의 완전히 새로운 비전, 타이페이 현대미  
술관, 타이페이  
미녀와 야수, 마로니에 미술관, 서울  
신소장품200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필, 앤조이&슘,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03 Five, 아트선제센터, 서울  
태극기, 경인미술관, 서울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네이밍 카드, 대안공간루프, 서울  
하이브리드 이론, 공화랑, 서울  
플라스틱, 아트파크, 서울  
가족오락(家族5樂), 가나아트센터, 서울  
프린스-프린세스, 갤러리현대, 서울  
2002 황해의 동쪽, 동대명 창고 갤러리, 상하이, 중국  
커밍 투 아워 하우스, 달링 아트 파운데이션, 서울  
11&11 한일현대미술 2002, 성곡 미술관, 서울  
2001 흔적&아토마우스, 캔버스 인터내셔널 아트, 암스테르담  
아트스펙트럼 2001, 호암 갤러리, 서울  
재현의 재현, 성곡 미술관, 서울  
2000 코리안 콘-템포러리: 한국 슈퍼엑스포2000, 웨스턴 아  
트리움, 빅 사이트, 도쿄  
미디어시티서울2000: 지하철 프로젝트, 을지로 3가 지하철역,  
서울  
시대의 표현: 눈과 손, 예술의 전당, 서울  
무서운 아이들, 쌈지스페이스 갤러리, 서울  
티셔츠, 아트선재센터, 서울

2012.11.15

보도자료

##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일민미술관, 서울  
아트선재 미술관, 경주  
금호미술관, 서울  
가나 아트센터, 서울  
매일유업, 서울  
사비나미술관, 서울  
서남재단, 서울  
UNEEC 문화교육재단, 타이페이  
국부기념관, 타이페이  
하이트 콜렉션, 서울  
NHN(주), 성남  
쌍용자동차, 평택  
하나은행, 서울

2012.11.15  
보도자료

정수진 Suejin Chung



정수진  
형상의 종류  
2012  
Oil on canvas, 22.7x15.8cm(64점)

2012.11.15

보도자료

## 정수진: 새로운 시각 이론

정수진은 최근에 새로운 시각이론에 관한 중간 발표를 하였다. 데뷔 이래 그녀가 오랜 천착해온 과제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시각이론인 형상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녀의 형상이론에 입각하여 선별된 64점의 그림은 전부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한 작품이다. 정수진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 그녀는 여전히 작품을 감상적으로 대하거나, 회화 외적인 문제를 회화에 도입하려는 태도, 구상과 추상을 형식적으로 구분하는 태도 등에 대해 냉정한 비판을 가하면서 회화적 이미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규명하려고 한다. 그녀의 종합적인 시각이론은 회화의 조형원리가 인식론과 동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펼쳐진다. 그녀는 회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형상을 색채과 형태의 조합으로 보고 사유를 전개한다. 그녀의 이론의 흥미로운 점은 '합명구조'라는 이론 속에 담겨있는데 여기서 그녀는 사유의 다양한 차원을 제시한다. 여러 차원을 거치면서 이행되는 사유의 과정처럼, 형상의 탄생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재현이론이나, 회화의 평면성 이론 등은 회화 전체에서 보면 모두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 된다. 비록 회화가 구현되는 공간은 종이나 캔버스 같은 이차원의 평면이지만 그 평면이야말로 다차원의 세계가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회화가 단순한 문학의 도해, 인생사의 교훈을 말하는 도덕적 메시지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 논리를 가진 고차원의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이다. 단순한 색형 조합에서부터 차원이 상승하는 과정을 통해, 회화는 수학, 철학적 인식론, 논리학, 샤머니즘적인 사유까지 만날 수 있고 고도의 질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미지에 관한 서구의 이론 틀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모든 형상들은 색채와 형태의 작용이라고 보면서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관람객들이 그림을 보는 방식은 형상차원에 주로 있지만, 화가들의 그림은 여백 차원에 많이 와있어요. 형상차원은 모두 직접적인 감각의 세계와 관련이 있지만, 여백차원은 이제 간접감각의 세계이고 거기서 개념이 나오죠. 간접감각의 세계는 바로 생각에 대한 생각의 세계이죠.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개념을 잘 표현했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백차원에서 저는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차원에서 발생한 개념이 다른 것들, 예컨대 철학개념들과 같은 것들과도 호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회화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장소는 평면밖에 없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공간이예요. 평면이야말로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인 것이고 샤먼들이 만들었던 상징, 상상의 공간은 바로 평면이지요."*



2012.11.15

보도자료

## 정수진

1969 서울 출생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95 시카고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 개인전

2011 입체·나선형 변증법, 몽인아트센터, 서울  
2010 현시(現視), 두산갤러리, 서울  
2009 아라리오 갤러리, 뉴욕  
2006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2000 뇌해, 사루비아 다방, 서울  
1999 시공갤러리, 대구

## 그룹전

2012 두산갤러리 서울 재개관전, 두산갤러리, 서울  
다섯 개의 프롤로그, 갤러리 스키이프, 서울  
2011 HOUSE/HOLD, 유진갤러리, 서울  
해인아트프로젝트: 통(通), 해인사, 합천  
사루비아 기금마련전, 가나아트센터, 서울  
갤러리 스키이프 재개관전, 갤러리 스키이프, 서울  
초핑 플레이: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 ION 갤러리,  
싱가포르  
2010 K-Art 아카이브 룸,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플라스틱 가든, 민생현대미술관, 상하이  
아티스트 워드 아라리오,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 천안  
2009 D-Air,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2008 메타모포즈, 한국의 트라젝토리, 에스파스 루이뷔통, 파리  
2007 디스터브드, 베를린  
2006 기브 미 쉘터, 유니온 갤러리, 런던  
2004 갤러리 스키이프 개관전, 갤러리 스키이프, 서울  
정수진, 스티븐 곤타스키, 박미나, 국제갤러리, 서울  
2003 양광찬란: 한국 현대미술전, 이스트링크 갤러리, 상하이  
그리는 회화: 혼성회화의 제시, 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아트스펙트럼 2003, 호암아트홀, 서울  
2002 한중 회화 - 2002 새로운 표정, 예술의 전당, 서울  
네오 페인팅- 한미 젊은 회화: 새로운 시대의 회화,  
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더 쇼, 인사아트센터, 서울  
커밍 투 아워 하우스, 달링 아트 파운데이션, 서울  
2001 2인 전, 백상기념관, 서울  
티라나 비엔날레 1: 이스케이프, 티라나, 알바니아  
2000 젊은 모색 2000 -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9 한국현대미술 신세대의 흐름: 믹서&주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주차장 프로젝트 1 - 만화, 아트선재센터, 서울  
1998 도시와 영상 -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레지던시

2009 두산 레지던시 뉴욕, 뉴욕  
2003 씬지 스페이스 스튜디오, 서울

## 소장

문예진흥원,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재단, 서울

**홍경택** Kyoungtack Hong



홍경택

선물

2010

Oil on canvas, 24.3x33.4cm

## 홍경택 : 세속적인 가운데서 성스러운 땅이나 초월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

홍경택은 한동안 팝아트적인 맥락에서 읽혀져 왔던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팝 아트적인 외피에 표현주의적인 에너지의 분출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지금까지 보여준 작품과는 조금 다른 일련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94년 첫 전시 이후 20여 년이 조금 못되는 기간 동안 그가 선보인 작품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작품들이다. "현대 미술이 잠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화면 속에 담고자 하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였다. "깊이 감이나, 어둡고 내밀한 느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동굴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자 대형 서점 그림을 그렸다. 이 작업은 "성스러운 땅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 곳", 즉 "회화작업 공간"을 보여주는 자기성찰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이런 성찰과 더불어 21세기에 회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으로 그는 현대인들이 테크놀로지 기기들을 만들 때에 "과연 미래만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진다. 과거의 미술은 우리가 언제든 돌아볼 수 있는 영감의 보고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그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영원함을 현혹하는 예술은 일종의 생명연장 장치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예술가가 태어나는 한, - 비록 예술가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지만 - 예술은 영원한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말이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여정을 "세속적인 가운데서 성스러운 땅이나 초월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품 중에 손을 주제로 한 작업에서 그는 "선과 악"이라는 오래된 인간의 문제를 끄집어낸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 담론에 밀려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인간의 중요한 문제를 말한다. 이런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한 탐구는 예술이 오랫동안 담당해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지금 21세기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19세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직 20세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21세기를 사는 최첨단의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힘의 원천, 힘의 장소, 그런 고유한 장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현대인들이 21세기에 예술작품이나 테크놀로지가 충만한 기기들을 만들 때에 과연 미래만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과거에서 많은 걸 끌어다 쓰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지만, 예술은 조금씩의 변화를 통해서 여태껏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임무 중 하나가 사람들의 생명연장 장치의 노릇인 것 같아요. 결국 작업이라는 것은 제 자신에게는 구원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가운데 아까 말했던 영지, 성스러운 땅이나 초월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2012.11.15

보도자료

**홍경택**

1968 서울 출생  
1995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2012 풀 오브 러브, 두산갤러리, 서울  
카이스갤러리, 홍콩  
2010 펜즈, 두산갤러리, 뉴욕  
2008 연옥, 카이스갤러리, 서울  
2006 기브 앤 테이크, 갤러리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형케스트라 신전, 갤러리 더 소셜, 서울  
2005 형케스트라,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3 조선헌화랑, 서울  
2002 일민미술관 카페 IMA, 서울  
2001 삼성 플라자 갤러리 분당, 분당  
2000 신전,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서울

**그룹전**

2012 다원주의,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두산갤러리 서울재개관전: 두산 레지던시 아티스트 2009-2011,  
두산갤러리, 서울  
개관 20주년 특별기획전 II - 진(進). 통(通) 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비틀즈 50년: 한국의 비틀즈 매니아, 롯데갤러리 본점,  
롯데갤러리 영등포점, 서  
울; 롯데갤러리 일산점, 고양; 롯데갤러리 광복점, 부산;  
롯데갤러리 광주점, 광주  
청심 평화 월드 개관기념 아트 프로젝트: 꿈, 사유, 창작, 청심  
평화 월드센터, 가평  
플라스틱 데이즈,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 - 이상과 허상에 꽃피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2 책거리 특별전 -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경기도 박물관, 용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일우 스페이스, 서울  
2011 헨켈 이노아트 프로젝트, 대안공간 루프, 서울  
기억의 미래를 좇는 사람들, 가나 아트 센터, 서울  
패션 인투 아트, 플라토, 서울  
청(靑) - 비온드 더 블루, 갤러리현대, 서울  
핑크시티 아트 프로젝트, 바이엄 아트센터, 자이푸르, 인도  
2010 메이드 인 팝 랜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다중의 효과, 갤러리 인, 서울  
아르코를 만나다, 아르코 미술관, 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갤러리현대, 서울  
다른 유사성, 보훔 미술관, 보훔, 독일  
신나는 미술관: Wow~! Funny Pop,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09 감각론, 인터알리아, 서울  
인사 미술제 특별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박하사탕 - 한국현대미술 중남미순회전 귀국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다른 유사성, 센트럴 이스탄불 미술관, 이스탄불

어 파트 오브 미, 스페이스 함, 서울  
2008 박하사탕 -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아르헨티나  
국립현대미술관, 부에노스 아이레스  
창원 아시아 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창작 해부학, 경기도 미술관, 안산  
팝 엔 팝, 성남 아트센터, 성남  
러시아 한국 현대미술전, 더 센트럴 하우스 오브 아티스트,  
모스크바  
코리안 아트 투데이: 더 월드 오브 익스프레션,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코리안 컨템포러리 아트 쇼,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싱가포르  
동시대 회화 양식, 두산갤러리, 서울  
2007 한국 현대 미술 - 원더랜드, 중국미술관, 베이징  
박하사탕 - 한국현대미술 중남미 순회전, 칠레 산티아고  
현대미술관, 산티아고  
비온드 아트 2007,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재활용 주식회사, 아르코미술관, 서울  
그림보는 법, 사비나미술관, 서울  
미술 속 동물들, 러 갤러리, 서울  
2006 세화견문록,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사물 시선,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 2006,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책의 기억, 북하우스, 파주  
아뜰리에 사람들 - 졸업, 가나아트센터, 서울  
미술과 마술, 갤러리 엠, 대구  
2005 팝 팝 팝, 가나아트센터, 서울  
가나 아뜰리에 오픈 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 서울  
한일 현대미술 특별전 - 참 우정의 형태, 세종문화회관, 서울;  
후쿠오카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남북한 현대 미술전, 캔버스 인터내셔널 아트, 암스테르담  
번역에 저항한다, 토탈미술관, 서울  
불특정한 주제, 조흥 갤러리, 서울  
한전 프라자 갤러리 특별기획 한국 현대미술전 - 해피니스,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나인 원 맨 쇼 - 아뜰리에 사람들III, 가나아트센터, 서울  
2004 가나 아뜰리에 오픈 스튜디오, 가나아뜰리에, 서울  
정물 예찬, 일민미술관, 서울  
2003 아트 북 아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 금호미술관, 서울  
아름다움, 성곡미술관, 서울  
지독한 그리기 부드러운 상상력,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2 상상력과 호기심,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중 2002 새로운 표정,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미술 44개의 퍼즐, 갤러리 라메르, 서울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 2002,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1 리얼리티 & 일루전, 신도리코 문화공간, 서울  
더 월드 "위드아웃" 아더,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서울  
릴레이 릴레이,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서울  
이야기 그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2000 디자인 혹은 예술,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에콜 드 서울, 관훈 갤러리, 서울  
1996 P.H.Y.S.I.C., 서경갤러리, 서울

2012.11.15

보도자료

- 1995 서울 현대 미술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 1994 대학미전, 홍익대학교, 서울

## 수상

- 2011 예고를 빛낸 사람들, 서울 예술 고등학교, 서울
- 2008 제 2회 올해의 미술인상 청년 작가상, 한국 미술 협회, 서울
- 1994 대학미전 금상, 홍익대학교, 서울

## 레지던시

- 2010 두산 레지던시, 뉴욕
- 2004-2006 가나아플리에, 서울

##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일민미술관, 서울
- 대림미술관, 서울
-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용인
- 두산갤러리, 서울
- 농심, 서울
- 하이트진로, 서울

2012.11.15  
보도자료

## 5. 설치 전경



2012.11.15  
보도자료

## 6. 작가 사진



왼쪽부터 이동기, 정수진, 홍경택, 남경민, 서상익